

알고 있는 '청정본각심' 실천하기

〈清淨本覺心〉



규봉 종밀과 법성교학
신규택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
3만2천원

(780~841)의 철학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종밀은 '청정본각심(淸淨本覺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서서 당시 선종의 '무심' 사상을 비판한다. 종밀이 사용하는 '무심'의 말뜻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이 번뇌가 없다.' 또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다.'이다.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결과, 번뇌 작용의 힘이 '업(業)'을 유발시켜 결국 인간을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며,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결과, 번뇌 작용의 힘이 '업(業)'을 유발시켜 결국 인간을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불교의 본래적인 입장으로 교학에서는 물론, 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의 남종이나 북종을 막론하고 모두 '무심'할 것을 요구한다. 종밀의 생각은 선종이 그저 '무심'만을 말할 뿐, '무심'이 된 뒤에 나타나는 '청정본각심'의 작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종밀의 골자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저자는 종밀의 비판에서 비롯된 철학을 골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저자 신규택

‘완전한 작용’ 일컫는 ‘법성’ 재해석해 중국화엄·선불교·정토사상 재구성 삼교일치론 전개한 종밀의 철학 접목 한국 현실에 맞는 신행생활 재조명

으로 불교가 어떻게 중국 땅에 정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경의 번역과 해석, 그리고 목록의 제작과 대장경의 제작 등을 통해 중국적 불교의 시작을 알아볼 수 있다.

제2부에서는 규봉 종밀의 교학 사상을 네 가지로 검토했다. 첫째는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교학 이론의 측면에서, 둘째는 선종관의 측면에서, 셋째

는 수행 이론의 측면에서, 넷째는 의례의 양상 등을 각각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3부에서 논의할 '법성교학'에 대한 실마리를 탐색한다.

제3부에서는 저자가 구축한 '법성교학'의 제 양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시도했다. 그리하여 종밀교학의 접점을 찾았고 그것이 화엄교학과 연결되는 양상 등을 상술했다. 제4부에서는 '법성교학'의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법성교학'의 입장에서 선과 정토 계을 등을 재해석 하고 있다. 책은 불교 '연구'를 넘어, 불교 '하기'를 담은, 실천적 불교철학서이다.

규봉 종밀(780~841)은

중국 당나라의 고승으로 화엄종의 제5조이다. 유교, 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하여 삼교일치론을 전개했으며, 원각경을 세상에 알린 공적이 크다. 그의 사상은 송학(宋學)의 원류가 되기도 했다. 한편 화엄종은 그의 후계자가 없어 5조에서 법통이 끊겼다.

저자 신규택 교수(연세대 철학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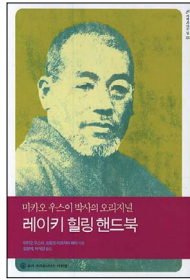
한국 불교계의 '철학적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저자는 1994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중국철학과에서 <규봉종밀의 '보각진심' 사상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화엄철학, 선불교, 중국철학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학사전>(공저), <선사들이 가려낸 세상>, <화엄의 법성철학>,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벽암록>, <선과 문학>, <원각경>, <화엄과 선>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주생명에너지 나누는 '레이키' 사용설명서

레이키 힐링 핸드북

마카오 우사이·프랑크 아르자바 페터 지음
김병채·박애영 옮김
슈리 크리슈나디스 아쉬람 펴냄 1만3천원



"레이키는 악물이나 힐링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체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고, 입김을 불고, 쓰다듬고, 가볍게 두드리고, 접촉하는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힐링합니다."

마카오 우사이 박사가 창시한 레이키(靈氣 Reiki) 힐링 요법의 손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 신체의 특정 부위와 이상 증상을 힐링하기 위한 손 자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놓은 <우사이 레이키 힐링 핸드북>이라는 실천편이다.

레이키란 우주의 생명에너지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사이 박사에 의해 체계화된 힐링 시스템을 말한다. 레이키는 손을 이용한 힐링 요법으로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이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 여러 부위에 차례로 손을 가져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의 신체 주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다.

핸드포지션 사진 첨부해

독자들이 알기 쉽게 만든 핸드북

책은 레이키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 레이키의 힘을 훨씬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마카오 우사이 박사의 힐링의 토대를 가능한 한 완전한 방식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레이키의 불교적 배경', '레이키의 3대 축', '호흡', '힐링 기법'이라는 네 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레이키의 힘은 자신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영감을 따라 자신의 손을 가져와 힐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마카오 우사이 박사의 직관을 이용한 일본식 힐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자연스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독자들이 선행할 수 있고 쉽게 힐링할 수 있는 핸드북을 제공하기 위해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핸드 포지션을 찍은 사진은 삽입했다. 이러한 핸드 포지션들은 내부의 모든 장기들 뿐만 아니라 내분비선 전 체계를 다룰 수 있고 신체적 수준, 정서의 수준, 마음의 수준, 마음의 수준 에너지의 수준 등 모든 수준의 힐링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은 수련을 하면서 도움받기 필요할 때 이 핸드북을 참고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박재완 기자

삶의 지혜 전달하는 <도덕경> 해설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김기태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1만3천원



"나는 이제부터 도(道)를 말하고자 한다. 도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언어나 문자에 담을 수 없는 도를 나는 이제부터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해설한 책이다. 2007년 발행되었던 초판의 개정판이다. 여느 해설서들과는 달리 도덕경을 '나'에 관한, 내면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 <도덕경>을 정치나 처세에 관한 글이 아니라, 시종일관 도(道)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완전한 자유의 길을 이야기하는 경언이자 지혜의 책으로 읽고 있다. 이런 관점과 독법으로 인해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신선한 통찰과 깊이 있는 해석을 볼 수 있다.

노자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도덕경>은 <노자>라고도 한다. 성립연대에 관해서는 이설(異說)이 분분하나, 그 사상·문제·용어 등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한 사람 또는 한 시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BC 4세기부터 한초(漢初)에 이르기까지의 도가사상의 집적(集積)으로, 전진시대(先秦時代)에 원본 <노자>가 있었던 모양이나, 현행본의 성립은 한초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후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상편 37장, 하편 44장, 합계 81장으로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노자 사상의 핵심은 형이상적(形而上的)인 도(道)의 존재를 설파하는 데 있다. 도는 곧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리의 다른 이름이 곧 도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풀어 참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자는 흔히 말하는 도(道)가 일면적·상대적인 도에 불과함을 논파하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새로운 도를 제창했다. 천지(天地)보다도 앞서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 존재이며, 천지간의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이를 성립시키는 이법(理法)이다. 다시 말

하면, 대자연의 영위(營爲)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 도이며, 그 도의 작용을 덕(德)이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도와 덕을 설파하는 데서, 노자의 가르침은 도덕(오늘날의 도덕과는 다름)으로 불리어 <도덕경>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

<도덕경>은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그동안 천 여 종 이상의 주석서와 해설서가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종의 <도덕경>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지은이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인 까닭에 명쾌한 해설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덕경>은 영원한 진리와 완전한 자유를 전하는 경언이며,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찬 글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설서는 문자 풀이에 그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들, 선사들의 어록과 행적, 안테르센 동화 등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다채롭게 설명한다. 저자 자신이 겪은 경험들, 그동안 저자의 도덕 경 영감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4 ~ 9/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3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엄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커스
6	8주 나를 바꾸는 시간	마크 웨리언스	불광출판사
7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선	운주사
10	불교의 미를 찾아서	이찬훈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대자유·행복을 꿈꾸는 시대, 간화선을 알면 길이 보인다

간화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書狀)이 대강백 무비 스님의 강설을 통해 부활하다

이것이 간화선이다
- 무비 스님의 서장 강설

대강백 무비 스님의 명쾌한 번역과 통쾌한 강설이 즉시 간화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대혜종고 신사가 제창한 간화선의 원형을 되살리고 선사들의 생생한 일화를 통해 간화선의 진수를 드러낸 이 책은 세계 유일의 간화선 전문가가 살아 숨쉬는 한국 간화선 부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대혜종고 원저, 여천무비 역해 / 신국판 양장본 / 값 29,500원

민족사 | 연구입문의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는 11310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구론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저법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 <직지>에 담긴 계승과 선문답에 대한 존철살인의 단상(斷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걸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Tel. 02)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제(0)의 발견에 필적하는 '아뢰아식'의 발견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아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아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경,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부에게서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치(横山 絳)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x6판

Tel. 02)732-2403~4 **민족사**